Journal of the Humanities

인문연구

제91호 / 2020. 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소 임원

소　　장: 정우현 교수(영남대 영어영문학과)

부 소 장: 한곽희 교수(영남대 철학과)

운영위원: 손승회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불어불문학과)
서인석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송병렬 교수(영남대 한문교육과)
이현진 교수(영남대 유아교육과)
정병석 교수(영남대 철학과)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연구교수: 김윤미(영남대 유럽언어문화학부)
이근화(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연 구 원: 김윤미(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덕화(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우건(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최은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행정담당: 김덕화(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목 차

• 편집노트 ····· 편집위원회 / i

【일반논문】

• 『소년조선일보』의 게재란 '자미잇는 글' 연구 ····· 공주은 / 1

• 대학 고전 읽기 수업 운영 사례 연구 ····· 서수백 / 31

•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글쓰기 교육
– 영화비평문 작성법을 중심으로 – ····· 손미란 / 59

• 피에르 퀴리의 노벨상 강연의 수사 비평 ····· 구자현 / 99

• 조르주 상드의 문학비평 : 서간집을 중심으로 ····· 윤형연 / 127

• 로보–사피엔스의 젠더화된 몸 비판
– 지넷 윈터슨의 〈석상〉을 중심으로 ····· 강영아 / 167

•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
–『나를 보내지 마』와『오레오레』를 중심으로 ····· 양종근 / 191

• 1930년 전후 불경기와 경제・노동 관련 어휘
– 조선인 발행 잡지의 어휘소개란을 중심으로 – ····· 김윤희 / 223

【편집노트】

이번 호에는 총 13편이 투고되어 8편이 게재 확정되었다. 게재률은 61.5%이다.

이번 91호에는 어문학을 비롯하여 교육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었다. 그리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문학, 교육학, 역사학, 철학과 관련한 논문들이 다양하게 실리게 되었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국문학을 비롯해 외국문학과 관련한 문학 관련 논문들이다. 공주은의 「『소년조선일보』 게재란 '자미잇는 글' 연구」는 1936년 1월 13일 그 제호가 처음 등장한 후 1937년 1월 10일부터 1940년 8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독자적인 4면 체제로 별쇄된 어린이 신문이자 특수지인 『소년조선일보』의 코너 중 하나인 '자미잇는 글'을 다룬 논문이다. 일제 말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이자 중일전쟁기에 드러난 특수한 역사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연구물이다.

윤형연의 「조르주 상드의 문학비평 : 서간집을 중심으로」는 조르주 상드George Sand가 여러 작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썼던 비평적 글을 분석함으로써 상드의 비평관과 문학관, 상드 문학비평의 특징을 규명하는 논문이었다. 서간문을 통해 작가의 비평관 뿐만 아니라 당대의 작가 사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강영아의 「로보-사피엔스의 젠더화된 몸 비판」과 양종근의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은 새로운 사회가 가지는 방향성을 통해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영문학 연구물이었다. 강영아의 「로보-사피엔스의 젠더화된 몸 비판」은 『석상』에서 맥머피 부인의 고정된 몸과 스파이크의 교체되는 여성적 몸에 집중하여 기술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방식을 살피고, 여성/여성로봇의 연대가 남성 과학자들이 구축한 젠더화된 몸을 해체하는 것을 남성중심의 체제가 부과

하는 규범적인 몸에 대한 저항이며 비판임을 분석하고 있는 논문이다.

양종근의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은 '복제'를 모티브로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본계 디아스포라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호시노 도모유키의 『오레오레』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짓는 '복제'라는 모티브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문제, 즉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는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흥미롭고 독특하게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학 기초 교양교육의 하나인 읽기와 쓰기와 관련한 논문의 게재이다. 서수백의 「대학 고전 읽기 수업 운영 사례 연구」와 손미란의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 글쓰기 교육 -영화비평문 작성법을 중심으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특히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 글쓰기 교육」은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이후 읽기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는 리터러시를 글쓰기 교육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인문연구』 91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읽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들에 쏟았을 투고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쉽게 이번 호에 실리지 못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